



소비자 리서치 전문기관

컨슈머인사이트 보도자료

기관	컨슈머인사이트	이메일	jungks@consumerinsight.kr
문의	소비자동향연구소	연락처	02) 6004-7627
배포일	2020 년 3 월 17 일	매수	자료 총 3 매

‘삶의 질’ 망가뜨린 코로나 19

컨슈머인사이트 ‘체감경제’ 조사 추이 비교

- ‘삶의 질’ 평가와 전망 모두 3월 들어 크게 악화
- 계층의식 하층 · 60대 이상 · 소상공인 전망이 가장 비관적
- 비관적 전망으로 이동폭은 60대 이상 여성 · 저소득층 · 대구/경북 · 소상공인
- 개강 연기된 대학생은 유일하게 낙관적 전망으로 이동

코로나 19 확산 이후 ‘삶의 질’에 대한 평가와 전망이 크게 부정적으로 변했다. 향후 6개월에 대한 전망을 가장 부정적으로 느끼는 집단은 △계층의식 하층 △60대 이상 △소상공인이었고, 비관적 방향으로의 이동 폭이 가장 큰 집단은 △60대 이상 여성 △저소득층 △소상공인 △대구/경북 거주자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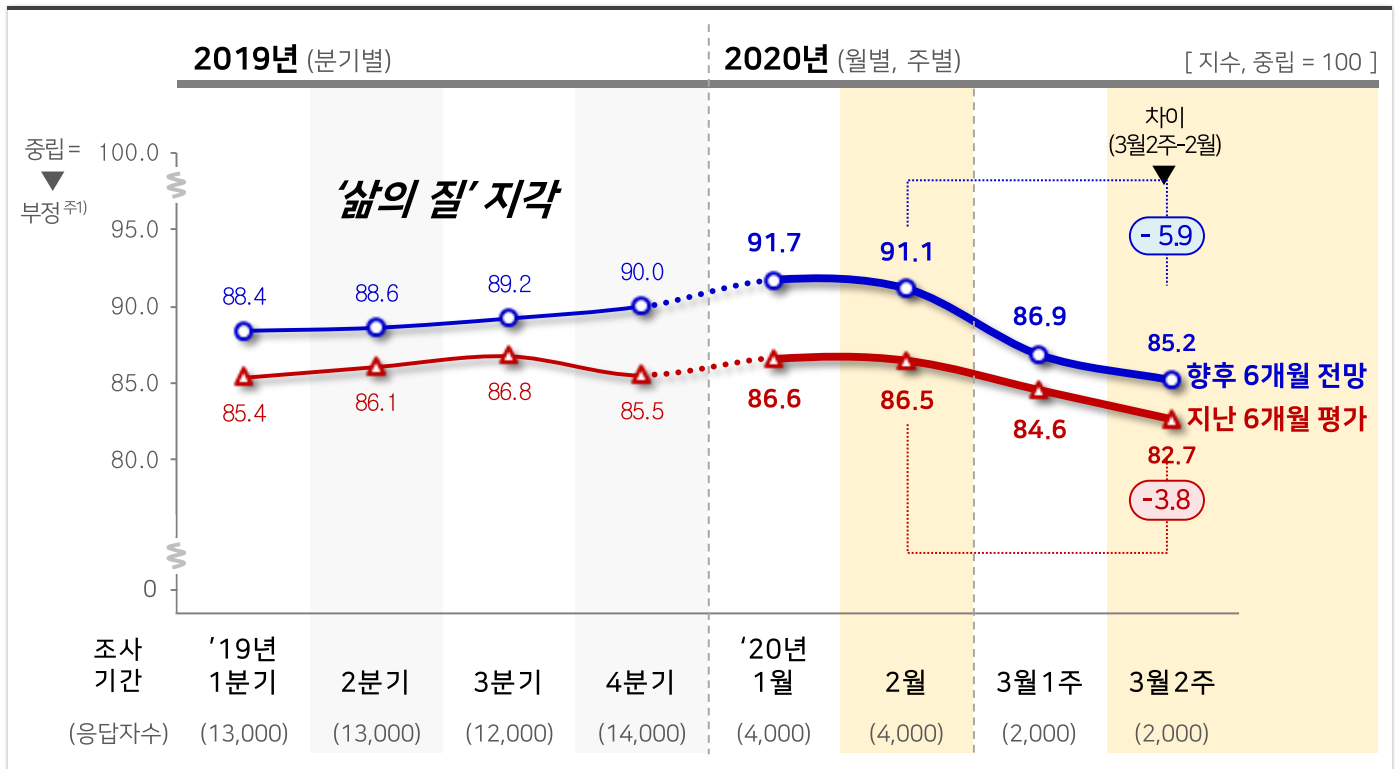
소비자조사 전문기관 컨슈머인사이트는 2019년 1월 시작한 ‘주례 소비자체감경제 조사’에서 매주 1000명에게 ‘모든 것을 고려할 때 △지난 6개월간 삶의 질에 어떤 변화가 있었고, △향후 6개월간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지’를 긍정-부정으로 답하게 해 지수를 산출했다. 현황 평가지수와 미래 전망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이보다 크면 긍정적, 작으면 부정적인 반응이 우세한 것을 뜻한다.

■ ‘삶의 질’ 지수, 3월 들어 2주 연속 큰 폭 하락

지난 1년간 △현황 평가지수는 80 중반 △미래 전망지수는 80 후반으로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반응이 우세했고, 전망 보다는 현황에 대해 더 부정적이었다(그림 1). 전망지수는 금년 1월 91.7, 2월 91.1로 전년보다 낙관적인 전망을 보였으나 3월 1주차(2월 26일~3월 2일) 86.9로 대폭 하락했고, 그 다음주에도 하락해(85.2) 2주간 무려 5.9포인트(p) 폭락을 기록했다. ‘삶의 질’이 극단적으로 나빠질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널리 퍼졌음을 보여준다.

지난 6개월간의 변화에 대한 평가도 2주간 크게 부정적으로 변했지만(86.5→82.7; 3.8p 하락) 미래 전망에 비하면 작았다. 소비자는 ‘삶의 질’이 현실적으로 크게 낮아졌다는 부정적 평가, 앞으로 더 낮아질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에 사로잡혀 있다.

[그림 1] '삶의 질' 지각



Q. (삶의 질 평가) 모든 것을 고려할 때 지난 6개월간 귀하의 '삶의 질'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습니까?

Q. (삶의 질 전망) 모든 것을 고려할 때 향후 6개월간 귀하의 '삶의 질'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주1) 척도 - 5점 ; 매우 긍정적(5), 약간 긍정적(4), 보통/그저그렇다(3), 약간 부정적(2), 매우 부정적(1)

주2) (매우 긍정적 200, 약간 긍정적 150, 보통/그저그렇다 100, 약간 부정적 50, 매우 부정적 0)으로 변환하여 산출한 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더 크면 '긍정적'이라는 소비자가, 더 작으면 '부정적'이라는 소비자가 더 많음을 의미함.

주3) 주별 자료는 자료의 안전성을 위해 그 전주와 단순이동평균을 구했음. 주3) 3월2주는 3월 4일에서 3월 10일 주임.

■ 40대 이상 여성, 코로나 19로 삶의 질 망가져

향후 6개월의 '삶의 질' 전망을 중심으로 누가 더 비관적으로 인식하고, 누가 더 비관적으로 변했는지를 확인했다. 코로나 19가 확산되기는 했으나 이전과 큰 변화가 없던 2월과 그 이후(3월 2주차)를 중심으로 성·연령대·가구 소득수준·거주지역 등 사회인구학적 특성별로 비교 분석했다.

3월 2주차에 가장 비관적으로 전망한 집단은 △계층의식 1분위(하위 20%)층으로 62.1이었으며, 그 다음은 △60대 여성 65.9 △60대 남성 71.1 △대구/경북 거주자 74.5 △소상공인 75.5 순이었다. 저소득층, 노령층, 대구/경북지역, 소상공인이 '삶의 질'에 대해 가장 우울한 전망을 갖고 있었다. 반면 가장 낙관적인 전망은 △20대 여성 102.1, △계층의식 5분위(상위 20%) 101.3으로 두 집단만이 중립적 전망 '100'을 넘었다.

△60대 여성은 2월 이후 2주간 '삶의 질' 전망이 -15.4p 하락하며 비관적 방향으로 가장 크게 이동했다. 그 다음은 △가구 월소득 200만원 이하(-14.0p) △대구/경북 거주자(-13.4p) △소상공인(-11.5p) △40대 여성(-10.9p) 순이었다. 코로나 19 직격탄을 맞은 대구/경북 지역, 경제적 손실 위험이 큰 저소득 가구와 소상공인, 40대 이상인 여성은 더 낙담하고 암울한 미래를 걱정하게 됐다. 자녀의 학교 휴업과 가족원들의 외출 감소에서 비롯된 가사 부담의 증가와 개인시간의 상실은 40대 이상 여성의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반대로 거의 유일하게 '삶의 질'이 향상된 집단이 있다. 학생이다(6.6p 상승). 이 조사에서 학생은 20세 이상으로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 등이 포함된다. 개강이 미뤄지고, 통학의 부담이 없어진 이들의 '삶의 질' 향상은 의외다. 학교에 가지 않아도 되게 된 것이 코로나 19에 따른 여러 위험과 제약이 주는 어려움을 상쇄하고도 남아 '삶의 질'이 높아졌다고 느끼게 된 것은 이율배반적이다. 특히 20대 여학생은 108.4로 2주간 13.2p가 올라 가장 긍정적이었다.

'삶의 질'의 평가와 전망 지수는 지난 1년간 80 중후반을 기록해 왔다. 지난 6개월에 대해 긍정적이지 않으며, 향후 6개월에 대해 낙관적이지 못했다. 여기에 덮친 코로나 19는 '삶의 질'에 큰 타격을 주고 있으며 노령층, 저소득층, 소상공인 등 취약 계층과 대구/경북 지역에 더 가혹하다. 모두가 어렵지만 낮아진 삶의 질로 특히 더 고통받는 이웃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절실하다.

이 조사결과는 소비자 조사 전문기관 컨슈머인사이트 소비자동향연구소가 기획해 2019년 1월 출범한 '주례 소비자체감경제 조사'로부터 나온 것이다. 매주 1000명(매달 4000~5000명)을 대상으로 삶의 질에 대한 ▲현황 평가와 ▲미래 전망에 대해 조사했다. 지수는 100 보다 크면 긍정적 변화, 100 보다 작으면 부정적 변화가 우세함을 뜻한다. 지수의 상승은 긍정적 방향으로의 이동, 하락은 부정적 방향으로의 이동이 있었음을 의미한다.

No	Title	Date
16	[CI 소비자체감경제 20-03] '코로나 19', 개인경제에는 실망 · 국가경제에는 절망 안겨	2020-03-11
15	[CI 소비자체감경제 20-02] 숨고르는 주택시장, 안정 보다는 과열 가능성 커	2020-02-27
14	[CI 소비자체감경제 20-01] 회복세 보이던 소비지출심리, '코로나 19'로 직격탄	2020-02-21
13	[CI 소비자체감경제 19-12] 재테크는 공격적, 지출은 보수적... '엇갈린 소비심리'	2019-12-19
12	[CI 소비자체감경제 19-11] 정부는 "집값 잡겠다"...소비자는 "부동산 권하겠다"	2019-11-26
11	[CI 소비자체감경제 19-10] 소비자는 이미 '디플레이션' 문 앞에 서있다	2019-11-13
10	[CI 소비자체감경제 19-09] 소비자 체감경제 4주만에 소폭 반등	2019-10-24
9	[CI 소비자체감경제 19-08] 소비자경제전망, 반짝 추석효과 2주만에 '원위치'	2019-10-17
8	[CI 소비자체감경제 19-07] 국민들은 '나'보다 '나라 경제'가 더 걱정이다	2019-10-08
7	경제통계 못 믿고, 언론사 여론조사 못 믿는다	2019-09-25
6	[CI 소비자체감경제 19-06] 영-호남 소비자 경제심리 '지역 격차' 심상찮다	2019-09-18

Copyright © Consumer Insight. All rights reserved.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For more Information

문의: 컨슈머인사이트 소비자동향연구소 Tel. 02) 6004-7627, Fax 02) 543-5984 E-mail: jungks@consumerinsight.kr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129 거평타운 19F Consumer Insight Inc.

www.consumerinsight.co.kr, www.invight.co.kr